

| 축하



저희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 모든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1973년에 창립되어 지난 50년간 꾸준한 발전을 이어왔고 이제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학회의 위상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선배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료 후배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학술 활동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금년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1973년 학회 창립 당시에는 정회원 95명, 학생회원 108명으로 출발하였으나 2023년 현재 정회원 3,086명, 학생회원 5,813명, 단체회원 47개사, 도서관 회원 46개사로 명실공히 국내 최대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학술지 JMB (J.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IF=3.277)는 SCIE 학술지로 등재 된지 30년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PubMed Central® 최종 등재지로 결정되어 더욱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MBL(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Letters)도 SCOPUS 등재지로 결정되는 등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들과의 학술교류와 과학기술 협력 연구로 그 지평을 더욱 넓혀가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학술분야 중에서도 미생물 생명공학 분야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학회는 더욱 학술 활동에 정진하여 미생물 생명공학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회원간 학술활동, 사회적 공헌 등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50년사”를 발간함에 있어 편집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홍순광 위원장님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시는 서강대학교 이규호 학회장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명희 간사장님, 부회장님, 간사님들의 수고에 KMB 아카데미 전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MB 아카데미 17대 회장

유익동



존경하는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원 여러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깊은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지난 5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1973년, 국문지 〈산업미생물학회지〉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는 9천여 명의 개인회원과 90여 개 단체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학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세기 전, 창립자들의 미래 지향적인 전망과 지혜로 시작된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생명공학 분야가 세계무대에서도 손꼽히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상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SCI급 학술지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품질 저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국제심포지엄과 학술행사를 매년 주최하여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국내는 물론 해외과학자들과의 교류 및 협력연구의 장을 제공하고, 인류생존을 위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생물학과 생명공학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예로, 유전자 변형 작물과 같은 농업 분야의 생명공학 혁신은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고, 전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은 미생물 연구의 중요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학회의 학문적 연구와 산업적 혁신이 미래사회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빛나는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미래 50년의 비전을 공유하며, 생명공학인들의 자긍심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며, 그 길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태 식

| SIMB-KMB President Message



Congratulations from SIMB!

On behalf of the Society for Industrial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I am deeply honored to extend our sincere congratulations and warm wishes to the Korean Society for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on their 50th Anniversary!

KMB now has a half-century of service to the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community, and its activities have advanced our scientific community while improving the lives and health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by nurturing excellence in research, publications, scientific meetings, workforce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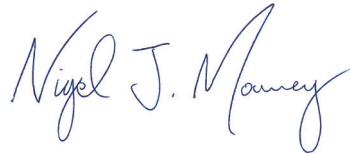
Both of our societies see our common role in facilitating, advancing, and supporting scientific progress within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fostering interactions between disciplines, sectors, and scientists at all levels, aiding in developing a bioeconomy, and being ambassadors to the public in our fields. SIMB greatly values the relationship we have developed with KMB over the years.

We especially value the many experiences our members have been able to share through scientific visits, writing, and exchanges, and we look forward to more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in international meetings. Along with several of my fellow SIMB Board

of Directors members, I also look forward to attending and participating in the KMB Conference later this year.

SIMB's Officers, Directors, and Membership all salute your accomplishments and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in the many years ahead!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 that reads "Nigel J. Mouncey". The signature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with a large initial 'N' and a long, sweeping underline.

Dr. Nigel J. Mouncey

President, Society for Industrial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